

# 매력적인 관광도시 만든다

##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무주군이 1천만 관광시대와 전 국민이 주목하는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한 무주관광종합개발에 착수했다.

무주군은 7일 무주 군민의 집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과 무주군의원, 지문위원단, 지역주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NO1 산악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무주군의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개발기본구상과 관광진흥계획 등을 공유했다.



무주군은 7일 무주 군민의 집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과 무주군의원, 지문위원단, 지역주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NO1 산악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무주군의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개발기본구상과 관광진흥계획 등을 공유했다.

무주군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경쟁력을 갖추면서 관광발전 전략 및 실행 로드맵을 설정, 관광개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이 계획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 청사진을 보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사업비 1,800억 원 규모(민자 약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세계적 관광도시, 문화관광도시, 도보관광도시,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관광개발 추진을 골자로 한다.

적상산과 라제동문, 무주구천동 관광특구를 축으로 거점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술문화와 역사문화, 친수/트레킹소권 부거점 관광개발 계획에 중점을 쏟는다.

계속사업으로 남대천 주변경관조성 사업, 부남 금강변 관광지원 활성화,

무주적상산성 종합 정비, 무주 생태모험 공원 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무주 주계고성 복원사업, 안성·덕곡저수지 지원화, 신라문화테마마블리지, 구천동 계곡길 명품화 등 11개 단위 및 개별사업도 향후 무주관광의 랜드마크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를 비롯해 반딧불 디지털 체험센터, 구천동33경 관광활성화, 덕유산과 적상산 등 보유 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한 전략적인 관광산업을 구상하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지역관광 매력도시 관광발전지수 1등급이며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무주군이 1천만 관광시대를 열 수 있도록 무주만의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둔다"며 "오늘 논의되고 제시된 관광 아이템을 착실하게 개발해 무주를 전국의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청렴실천 결의대회 가져

장수군은 7일 군청 군민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장수군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최훈식 군수, 이종훈 부군수 등을 비롯한 장수군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등 준수 △근품·향응 수수 금지 △투명한 예산집

행 △산선·청탁 및 부당지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 후 전 직원이 함께 청렴 구호를 외치는 청렴 퍼포먼스를 통해 청렴실천 결의를 다졌다.

또한 결의대회를 마친 후에는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을 전문강사로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한 슬기로운 청렴 공직생활'을 주제로 전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윤희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렴실천 서약식을 추진하고 개인 업무노트에 청렴서약서를 부착하여 장수군 공직자의 청렴의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다짐을 삼아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직원 모두가 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오는 3월 11일 청정지역 진안고원에서 개최되는 운장산 고로쇠 축제가 프로그램 참가자 사전 모집에 한창이다.

고로쇠 축제를 조금 더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고로쇠 수액 채취 체험, 숲 놀이, 친환경 만들기 등을 한 번에 경

험할 수 있는 '출발! 숲 탐험대', 고로쇠 축제장에서 멋진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고로쇠 가수왕 선발대회', 그동안 숨겨온 본인의 특별한 장기를 발산할 수 있는 '봄봄봄~장기자랑' 등 총 3가지 프로그램에서 사전 접

수를 받고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은 오는 1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진안홍삼축제 홈페이지(<https://www.jinan.go.kr/festival>) 또는 진안군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jinan-gun>)를 방문해 접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훈식 군수가 7일 장수군 산불진화대기 초소를 방문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격려하고 산불 진화태세를 점검했다.

## “산불 예방 총력 기울여 달라”

### 최훈식 장수군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격려·산불 진화태세 점검

최훈식 군수가 7일 장수군 산불진화대기 초소를 방문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대를 격려하고 산불 진화태세를 점검했다.

군은 본격적인 산불조심기간(2.1.~5.15.)에 접어들면서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산불방지대책본부 1개소(2명)과 읍·면 7개소(7명), 산불예방 활동 및 감시업무 비상근무 체제를 통해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본부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영농 부산물 불법소각 및 입산 통제구역 입산 실화가 예상됨에 따라 산불진화인력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감시 및 순찰·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의 산림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철저한 산불방지대책과 신속한 출동준비 태세로 장수군에 산불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앞장’

### 진안군, 노후·불량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진안군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조사해 단열창호 및 보일러 교체 등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해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방법시설, 부엌·화장실 개보수를 통해 생활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3년 이내 다른 집수리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가 주택이나 건축물 소유자가 동의한 임차 가구다.

군은 신청이 들어온 가구에 대해 3월말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조사를 해 보수가 시급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가구 1호당 5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투자해 리모델링이 진행되며 올해는 총 3억원(국비·복권기금 50%, 군비 50%)의 예산을 들여 60가구의 집수리



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저소득층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며 “특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세심히 살펴 필요 가구 발굴 등에 더욱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시작한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까지 관내 1,193호에게 집수리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농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무주군은 올해 9월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앞두고 신청자 접수에 나선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무주군에 있으며, 농업경영체와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다.

다만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농민은 수당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오는 4월까지 각 읍·면 산업팀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으며, 8월까지 요건을 검증한 후 대상자에게 오는 9월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30억9천5백만 원(도비 12억3천8백만 원 포함)을 확보하고 5,130여 세대(농가당 연 60만원)가 농민 공익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 카드형(농민수당 공익행카드로)으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4,921농가를 대상으로 60만 원씩 총 30억여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귀농·귀촌인 주거비 지원사업 접수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귀농촌 가구의 안정적 정주 여건 형성을 위해 ‘2023년 귀농·귀촌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귀농·귀촌인 주거비 지원사업”은 관내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월 임차료의 50%(최대 15만원/월)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입예정 또는 2018년 이후 전입한 가구로 1년 이상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진안군으로 전입신고한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 가구의 세대주로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이후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063-433-0243)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